

## 『새한글성경』 구약 번역 해설 — 읍기 —

안근조\*

### 1. 읍기 1:6

#### 1.1. 히브리어 본문, 한글, 영어, 독일어 번역본들 몇 가지 옮겨 적기

BHS<sup>5</sup>

וַיְהִי הַיּוֹם וַיָּבֹא בְּנֵי הָאֱלֹהִים לְהַתִּיצָּב עַל־יְהוָה וַיָּבֹא  
גַּם־הַשְׁטָן בְּתוֹכָם:

『개역개정』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  
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새번역』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  
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공동개정』

하루는 하늘의 영들이 야훼 앞에 모여왔다. 사tan이 그  
들 가운데 끼여 있는 것을 보시고

『새한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사tan도 그들 가운데로 끼어들었다.

ESV

Now there was a day when the sons of God came to present themselves before the LORD, and Satan also came among them.

NET<sup>2</sup>

Now the day came when the sons of God came to present themselves before the LORD — and Satan also arrived among them.

\* Boston University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호서대학교 기독교학과 부교수 및 연합신학전문대학원 구약학 전공주임교수. otahn@hoseo.edu.

- LB Es begab sich aber eines Tages, da die Gottessöhne kamen und vor den HERRN traten, kam auch der Satan mit ihnen.
- BB Eines Tages kamen die himmlischen Wesen und traten vor den Thron des HERRN. Auch der Satan war unter ihnen.

## 1.2.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 (1) 개별 표현

#### ① נִיְבָא(와야보우)의 번역

‘와서’(『개역개정』, 『새번역』), ‘모여와서’(『공동개정』), ‘들어와서’(『새한글』).

#### ② נִיְבָא גַּם־הַשְׁׁלֵן בְּתוֹכָם(와야보 감-하사탄 브토캄)의 번역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개역개정』),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새번역』), ‘사탄이 그들 가운데 끼여 있는 것을 보시고’(『공동개정』), ‘사탄도 그들 가운데로 끼어들었다’(『새한글』).

## 1.3.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 (1) 개별 표현의 번역

성서 히브리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인 נָבָא(보)는 시공간상의 장소 이동을 뜻합니다. 그러나 구약 히브리어 사전 BDB는 의미를 더 세밀하게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하나는 ‘들어오다(come in)’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오다/도착하다(come/arrive)’입니다. 기준의 한글 번역본뿐만 아니라 영어와 독일어 번역본에서도 단순히 후자인 ‘오다’의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기 1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배경이 천상 회의(Divine Council)인 것을 감안한다면 회의의 참여자들이 어전회의 석상에 ‘들어오는/들어가는’ 표현이 더 바람직합니다. 최신 구약 히브리어 사전(HAL/HALOT)은 נָבָא(보)의 근본 의미를 ‘to enter through(들어오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들어오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일정한 지역이나 공간의 범위와 관련하여 그 밖에서 안으로 이동하다.” 새로운 경계나 장소로의 공간적 이동이 강조됩니다. 『새한글』에서는 원천 언어인 히브리어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되 수용 언어인 우리 한글 고유의 표현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천사들이 회의 자리 야웨의 보좌 앞 일정 공간 ‘안으로’ 이동

한다는 의미에서 **אָבָו(보)**를 ‘들어와서’로 번역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בָּתָּהָלָּתְן נִמְ-הַשְׁבָּא נִיְבָּא**(와야보 감-하사탄 브토캄)의 번역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탄도 그들 가운데로 끼어들었다’의 번역은 단순히 ‘오다/도착하다(come/arrive)’의 의미가 아닙니다. 천상 회의 공간에서 발언권을 행사하려고 의도적으로 ‘들어오는(enter through)’, 곧 ‘끼어든’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개정』이 ‘사탄이 그들 가운데 끼여 있는 것을 보시고’로 읽지만 ‘끼여 있는’ 모습은 동작보다는 상태가 강조됩니다. 그리고 ‘… 보시고’라는 동사는 원문에 없습니다. 이곳 『새한글』의 번역은 하늘의 어전회의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장면에서 ‘사탄도’ 그 회의의 일원으로 ‘그들 가운데로 끼어들었다’라는 보도를 통하여 이후 펼쳐질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논의를 문맥상 예고하고 있습니다.

#### 1.4. 『새한글』 육기 1:6의 가르침

육기 1장은 두 가지 의미에서 기독교 독자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첫째, 천상 회의에 등장하는 **הַשְׁבָּא**(하사탄)의 존재입니다. 둘째, 육의 의로움을 둘러싼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논쟁입니다. 그러나 『새한글』의 번역은 굳이 고대 근동의 ‘천상 회의’라는 문학적 모티프에 대한 지식을 모르더라도 육기의 도입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느 날 하늘 궁정,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열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천사들<sup>1)</sup>의 모임에 **הַשְׁבָּא**(하사탄)이 ‘들어와서 … 그들 가운데로 끼어든’ 것입니다. 이 번역은 위의 두 가지 의문을 단번에 해소합니다. 본래, 하늘 회의에 대한 선이해가 없어도 **הַשְׁבָּא**(하사탄)의 의도적인 ‘들어옴’이 부각됩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논쟁은 천사들 가운데로 ‘끼어든’ 사탄의 동작에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새한글』의 번역이 학문적 고대 근동의 문학적 배경을 훼손하지 않은 채, 그러면서도 기독교 독자들의 ‘사탄’에 대한 전통적 인식에 어긋나지 않은 채, 육기 이해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육의 시험은 **הַשְׁבָּא**(하사탄)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섭리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의인 육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진대 일반 신앙인들에게 고통의 현실은 일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의 참소를 용인하시는 하나님의 참뜻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 『새한글』의 각주.

## 2. 읍기 12:5

## 2.1. 히브리어 본문, 한글, 영어, 독일어 번역본들 몇 가지 옮겨 적기

BHS <sup>5</sup>	<b>لְפִיד בּוֹ לְעַשְׂתִּוֹת שָׁאָן נְכוֹן לְמוֹעֵדְךָ נְגָל:</b>
『개역개정』	평안한 자의 마음은 <u>재앙을 멀시하나</u> <u>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u>
『새번역』	고통을 당해 보지 않은 너희가 <u>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u>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공동개정』	태평무사한 자의 눈에는 <u>재난에 빠진 자가 천더기로 보이고 미끄러지는 자는 밀쳐도 팬찮은 자로 보이는 법이지.</u>
『새한글』	<u>재난은 하찮은 것이지</u> , 편안히 사는 사람의 생각에는. <u>그러나 비틀거리는 사람들에게는 발길질을 하지.</u>
ESV	In the thought of one who is fat ease <u>there is contempt for misfortune; it is ready for those whose feet slip.</u>
NET <sup>2</sup>	<u>For calamity, there is derision</u> (according to the ideas of the fortunate) — <u>a fate for those whose feet slip.</u>
LB	<u>Dem Unglück gebührt Verachtung</u> (재난은 경멸받을 일이지), so meint der Sichere; <u>ein Stoß denen, deren Fuß schon wankt</u> (이미 비틀거리는 자를 밀치고 있다)!
BB	Die in Sicherheit leben, haben gut reden: Sie sagen: » <u>Ein Unglück nimmt man mit Verachtung hin</u> (사람이 불행을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 <u>Doch wer strauchelt, bekommt auch noch einen Tritt</u> (그러나 넘어지는 자에게 발길질을 더하고 있다).

## 2.2.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 (1) 어순

5상반절의 원문은 ‘재앙/불행’이 서두에 오고 재앙에 대해 반응하는 주체자가 뒤따르는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 번역본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은 하나같이 주체자를 먼저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새한글』(NET<sup>2</sup>와 LB 또한)은 히브리어 원문의 어순을 따라서 문장 맨 앞에 ‘재난’을 그대로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 (2) 개별 표현

### ① **בָּזֶבֶד**(라피드 부즈)의 번역

‘재앙을 멸시하나’(『개역개정』),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새번역』), ‘재난에 빠진 자가 천더기로 보이고’(『공동개정』), ‘재난은 하찮은 것 이지’(『새한글』).

### ② **רָגָל מִזְרָחִי נָכוֹן**(나콘 르모아데이 라겔)의 번역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개역개정』),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새번역』), ‘미끄러지는 자는 밀쳐도 괜찮은 자로 보이는 법 이지’(『공동개정』), ‘그러나 비틀거리는 사람들에게는 발길질을 하지’(『새한글』).

## 2.3.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 (1) 어순

기존의 번역본들이 한글이나 외국어에서 모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히브리어 원문에서 시작하는 문장이 동사 없는 두 개의 명사, **בָּזֶבֶד**(라피드)와 **בָּזֶבֶד**(부즈) 곧 ‘재난/불행’과 ‘멸시/깔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nominal sentence). 또한 뒤이어 ‘재난’에 대해 반응하는 주체가 **לְעִשְׂתָּוֹת שָׁאָנוֹן**(르아쉐투트 쇠아난)의 **לָ**(라메드) 전치사구 형태로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도 큽니다. 이런 문장은 형용하는 어구를 첨가함으로써 부정확한 의역을 결과하기 쉽습니다. 이를 피하도록 『새한글』은 원문의 어순을 따라 간결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어순에 충실할 때 문장 구조가 선명해집니다. 곧, 처음과 나중 부분에 ‘재난은 하찮은 것 이지’와 ‘발길질을 하지’가 대구를 이루고, 중간 부분의 ‘편안히 사는 사람의 생각에는’과 ‘그러나 비틀거리는 사람들에게는’이 대조를 이룹니다. 뜻이 명확해지고 한글로 낭송시 리듬감까지 더해 줍니다.

### (2) 개별 표현의 번역

① 본래 **בָּזֶבֶד**(라피드)는 ‘불꽃/횃불’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예. 삽 15:4). 그러나 구약 히브리어 사전(HAL/HALOT)은 이곳에서 **לָ**(라메드)는 불필요 사이므로 **בָּזֶבֶד**(라피드)를 ‘재앙/재난’의 뜻으로 읽도록 안내합니다. 문제는 다음 단어 **בָּזֶבֶד**(부즈) 곧 ‘멸시/깔봄’과의 구문론적 관계성입니다. 두 개의 명사로 이루어진 문장이기에 『새한글』에서는 주어-동사의 관계로 ‘재난은 하찮은 것 이지’로 번역했습니다. 『개역개정』과 『새번역』에서는 목적어-동사의 관계로 번역하고 주어를 뒤이어 나오는 전치사 구문 **לְעִשְׂתָּוֹת שָׁאָנוֹן**(르아쉐투트 쇠아난)으로 번역했습니다.

쉐투트 쇠아난)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은 히브리어 문장의 강조를 ‘재앙/불행’의 문제에서 ‘편안한 자의 관점’의 문제로 옮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공동개정』은 ‘재난에 빠진 자가 천더기로 보이고,’로 주어-동사의 관계로 번역하는 듯 보이나 여전히 실제적 주어는 전치사 구문(‘태평무사한 자의 눈에는’)에 둠으로써 ‘재앙’보다는 ‘편안한 자의 생각’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읍이 강조하는 바는 ‘불행’ 자체에 대한 담론입니다. 따라서 **נִפְלָא**(피드)를 주어로 하여 ‘재난은 하찮은 것인지’로 일단 끊어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LB 또한 ‘재난’에 대한 읍의 묵상을 먼저 번역함으로 불필요한 의역(『새번역』이나 BB)을 삼가고 있습니다.

② 5하반절의 **נִפְלָא רָגְלִי לְמֹעֵד**(나콘 르모아데이 라겔)의 번역에 있어서도 주어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직역은 ‘비틀거리는 자에게 타격’으로서, 주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역개정』은 전반절에서 **נִפְלָא**(피드)를 주어로 가져온 경우입니다. 그러나 『새번역』은 본문에도 없는 ‘너희는’ 곧 친구들을 주어로 의역하였고 『공동개정』은 **לְמֹעֵד רָגְלִי**(르모아데이 라겔)의 목적격 전치사구를 무리하게 주어로(‘미끄러지는 자는’) 읽는 문제가 있습니다. 『새한글』은 『개역개정』과 같이 전반절의 **נִפְלָא**(피드)를 주어로 전제합니다. 그러나 『개역개정』은 **נִכְזָן**(나콘)을 **כִּין**(쿤) 동사로부터 ‘기다리는구나(be ready/set up)’로 번역한(ESV, NET<sup>2)</sup>) 것과는 달리, 『새한글』은 최신 구약 히브리어 사전(HAL/HALOT)에서 제안하듯 **נִכְחָה**(나카)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밀침/발길질(Tritt/Stoß)’(LB, BB)로 읽습니다. 이로써 본문에서 읍이 묵상하고 있는 ‘재난’에 대한 의미를 강조합니다. 즉, 사람에게 닥친 ‘재난’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편안히 사는 사람의 생각’대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에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심대한 실존적 고통의 문제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2.4. 『새한글』 읍기 12:5의 가르침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들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가요? 읍기 12장은 읍의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제기한 ‘지혜의 숨은 이야기’(11:6) 곧 지혜의 신비를 통해 고통의 문제를

2) NET<sup>2</sup>는 이것을 ‘a fate for those whose feet slip’으로 번역하는데, 이는 ESV의 ‘it is ready’와 상응하는 **כִּין**(쿤) 동사 수동형의 의역으로 읽힙니다. 즉,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는 자들’에게 펼연적으로 ‘fixed’ 되어 있는 동사적 의미로써 ‘운명’이라는 단어가 도입된 것입니다.

새롭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육은 친구들의 깨달음과 지혜가 자신에게도 있음을 선포하면서(12:2-3), 5절에서 ‘편안히 사는 사람’과 ‘비틀거리는 사람’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비틀거리며 고통당하는 자가 자신이요, 편안한 상태에서 판단만 하는 자가 친구들임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재난/불행’에 대하여 각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지적함으로써 정작 소발이 말하는 ‘지혜의 숨은 이야기’가 인과응보 교리보다는 현실의 고통 경험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12:7)도 ‘바다의 물고기들’(12:8)도 알고 있다고 풍자합니다. 그 일반적인 지혜가 바로 재앙의 현실이요 고통의 직시입니다. 그런데 편안히 사는 자들은 그 재난을 ‘하찮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막상 본인은 고통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과 같은 현실에 처한 자 곧, ‘비틀거리는 자’에게는 ‘재난’이 계속된 ‘발길질’처럼 고통에, 고통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새한글』은 세친구와의 논쟁 가운데 있는 육이 그들과는 달리 ‘재난/불행’에 대하여 지식이나 교리가 아닌 경험과 현실로 체험하게 되는 ‘지혜’를 들려주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고통을 참으로 이해하는 자들은 ‘편안히 사는 사람’이 아닌 ‘비틀거리는 사람’이요, ‘안전지대의 지식인’이 아닌 ‘상처 받기 쉬운 생활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 3. 육기 27:11

#### 3.1. 히브리어 본문, 한글, 영어, 독일어 번역본들 몇 가지 옮겨 적기

BHS<sup>5</sup>

אָרוּהַ אַתְּכֶם בִּידְ-אֵלִים אֲשֶׁר עַמְּ-שְׂדֵי לֹא אֲכַחְךָ

『개역개정』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

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새번역』

날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큰지 가르치라고 해 보아라. 전능하신 분께서 계획하신 바를 설명하라고 해 보아라.

『공동개정』

나 자네에게 하느님의 힘을 가르쳐주고 전능하신 분의 속뜻을 열어 보여주리라.

『새한글』

나 그대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겠네. 삿다이 (전능하신 분)의 속마음을 감추지 않겠네.

ESV

I will teach you concerning the hand of God; what is with the Almighty I will not conceal.

NET <sup>2</sup>	I will teach you about <u>the power of God</u> ; <u>what is on the Almighty's mind</u> I will not conceal.
LB	Ich will euch über <u>Gottes Tun(하나님의 일)</u> belehren, und <u>wie der Allmächtige gesinnt ist(전능하신 분의 의도를)</u> , will ich nicht verhehlen.
BB	So will ich euch nun über <u>Gottes Tun(하나님의 일)</u> belehren und nicht verschweigen, <u>was der Allmächtige plant(전능하신 분의 계획을)</u> .
ZB	Ich will euch über <u>Gottes Macht(‘하나님의 힘’)</u> belehren, euch nicht verhehlen, <u>was Schaddai denkt(‘전능하신 분의 생각을’)</u> .

### 3.2.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 (1) 개별 표현

##### ① יְהִיד־אֱלֹהִים(브야드-엘)의 번역

‘하나님의 솜씨’(『개역개정』), ‘하나님의 응답’(『새번역』), ‘하느님의 힘’(『공동개정』), ‘하나님의 일’(『새한글』).

##### ② יְהִיד־שָׁדַי(임-샷다이)의 번역

‘전능자에게 있는 것’(『개역개정』), ‘전능하신 분께서 계획하신 바’(『새번역』), ‘전능하신 분의 속뜻’(『공동개정』), ‘샷다이(전능하신 분)의 속마음’(『새한글』).

### 3.3.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기본적으로 יְהִיד(야드)는 ‘손’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나 비유적으로 ‘힘/능력’으로도 번역 가능합니다(예. 사 11:11; 66:14; 렘 15:17; 전 7:26 등). 그러나 전치사 בְ(브)와 더불어 본문과 같이 יְהִיד(브야드)로 쓰일 경우, 구체적인 일의 실행을 의미합니다. 구약 신학 사전 *TDOT*에 의하면, יְהִיד(브야드)는 주로 특별한 일을 수행하는 매개자 또는 대리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예. 창 38:20; 출 16:3; 삼 6:36; 학 1:1 등). 기존의 번역본들이 יְהִיד(브야드)의 용례를 고려하지 않고 יְהִיד(야드)에 집중하여 ‘hand’(ESV, NRS)나 비유적 의미로 ‘솜씨’(『개역개정』) 또는 ‘힘’(『공동개정』, NIV, NET<sup>2</sup>, ZB)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또는 그의 손 ‘안에서’ 일어난 행위 또는 행위의 결과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독일어 성서 LB와

BB(Gottes Tun[‘하나님의 일’])와 같이 『새한글』에서는 ‘하나님의 일’로 번역했습니다. 더 나아가 TDOT는 נָשָׁה(브야드)가 ‘~의 주권/감독 아래’의 의미로도 쓰인다고 강조합니다(예. 대하 26:11). 따라서 융은 현재 단순한 하나님의 ‘솜씨’나 ‘힘’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 가능합니다.

『새한글』에서는 족장 시대로부터 알려진 신명, נָשָׁה(샷다이)를 원문 음역 그대로 실고 팔호 안에 ‘전능하신 분’으로 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נָשָׁה(샷다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 히브리어 사전 BDB에 의하면, נָשָׁה(샷다이)는 본래 ‘자족하신 이(self-sufficient)’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전능하신 이’ 또는 ‘주권자’의 의미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약 신학사전 TDOT에 의하면, 어원학상 아카드어의 ‘솨듀’(mountain)와 관련하여 히브리어 נָשָׁה(샷다이)를 ‘산의 신’으로 명명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융기에서 נָשָׁה(샷다이)는 31회 등장합니다. 이는 구약성경 전체 48회 출현 가운데 2/3의 빈도수입니다. נָא(엘)이나 אֱלֹהִים(엘로하)와 더불어 נָשָׁה(샷다이)의 잣은 출현은 융기 사건의 배경이 족장 시대에 상응하는 고대(archaic)라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더 나아가 당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구약 히브리어 사전(HAL/HALOT)은 구약성경 야웨 종교 형성 과정의 특정 시기에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낼 때 נָשָׁה(샷다이)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밝힙니다(예. 창 17:1; 49:25; 출 6:3; 민 24:4 등).

중요한 것은 נָשָׁה-מְשֻׁבָּח(임-샷다이)의 번역입니다. 형태상 מְשֻׁבָּח(임) 전치사가 נָשָׁה(샷다이) 앞에 붙어서 문자적으로 ‘샷다이와 함께/더불어’로 읽힙니다. 그러나 구약 히브리어 사전 BDB는 מְשֻׁבָּח(임) 전치사의 근원적 의미인 ‘교제/친밀성’으로부터: 1) “~와 함께”; 2) “~곁에”; 3) “~의 것”; 4) “~의 생각/목적”; 5) “~에도 불구하고”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개역개정』과 ESV는 3)을, 『새번역』과 『공동개정』은 4)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새한글』 역시 4)에 준하여 번역하였으나 ‘계획’이나 ‘속뜻/생각’보다는 ‘속마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융이 주장하는 바,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개역개정』 12:4) 자가 갖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를 잘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문 27장의 맥락상 세 친구와의 논쟁이 끝나고 28장 지혜 묵상시로 이행하는 분수령에서 더이상 관습적 ‘하나님의 뜻’을 쓰는 교리적 신앙이 아닌 계시하시는 נָשָׁה(샷다이, ‘전능하신 분’)와의 실존적 신앙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 3.4. 『새한글』 읍기 27:11의 가르침

욥의 고통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1:1, 8; 2:3)이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오늘날 경건한 신앙인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읍이 고통의 이유가 ‘하나님’ 때문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이하, 『새한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기 때문이라네’(19:21하). 그러면서 자신의 고통을 탄식할 때 유독 **יְהוָה**(샷다이, ‘전능하신 분’)를 자주 언급합니다: ‘샷다이(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내게 박혀 있어. 내 영이 그 독을 마신다네’(6:4상); ‘샷다이(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어쩔 줄 모르게 하셨다네’(23:16하); ‘샷다이(전능하신 분) 곧 이 봄 쓰라리게 하신 분이 살아 계심을 결고서!’(27:2하). 클라우스 코흐(K. Koch)는 “Šaddaj. Zum Verhältnis zwischen israelitischer Monolatrie und nordwest-semitischem Polytheismus” (VT 26 [1976]) 제하의 논문에서 읍의 하나님 명칭 중 **יְהוָה**(샷다이)가 **לֵא**(엘)에 비해 더 친밀한 관계를 드러낸다고 주장합니다. **לֵא**(엘)이 외적이고 공적인 존엄한 하나님 개념이라면 **יְהוָה**(샷다이)는 보다 인간적이고 공간적으로 가까운 관계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까움’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또한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코흐의 견해를 받아들여 읍과 하나님 사이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성을 참조한다면,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과 ‘샷다이의 속마음’을 가르쳐 주겠다는 읍의 언급이 이해됩니다. 읍에게는 세 친구들에게 없던 **יְהוָה**(샷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또한 친밀함 속에 쌓인 읍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תְּהָאָנָה**(하사탄)의 시험을 용인하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읍이 제기했던 전무후무한 ‘신인법정소송(Divine-Human Tribunal)’ 또한 **יְהוָה**(샷다이)에게 향한 가까움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샷다이(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릴 것이고, 하나님과 다투고 싶다네’(13:3). 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항변과 대적이 아닙니다.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יְהוָה**(샷다이)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친밀한 관계성에 기반합니다. ‘교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진의/속마음’을 읍은 구하고 있습니다. 읍은 ‘하나님을 경외’가 무엇인가를 고통 속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 4. 읍기 38:2

### 4.1. 히브리어 본문, 한글, 영어, 독일어 번역본들 몇 가지 옮겨 적기

BHS <sup>5</sup>	<u>מִי</u> <u>זֶה</u> <u>נִזְחַמֵּךְ</u> <u>שְׁחָה</u> <u>בְּמַלְיָן</u> <u>בְּלִי-דָעַת:</u>
『개역개정』	무지한 말로 <u>생각</u> 을 어둡게 하는 자가 <u>누구냐</u>
『새번역』	<u>네가 누구이기에</u> 무지하고 헛된 말로 <u>내 지혜</u> 를 의심 하느냐?
『공동개정』	부질없는 말로 <u>나의 뜻</u> 을 가리는 자가 <u>누구냐?</u>
『새한글』	“ <u>이 사람은 누구인가?</u> 알지도 못하고 말하니 <u>내 본뜻</u> 을 가리는구나.
ESV	“ <u>Who is this</u> that darkens <u>counsel</u> by words without knowledge?
NET <sup>2</sup>	“ <u>Who is this</u> who darkens <u>counsel</u> with words without knowledge?
LB	<u>Wer ist's(이것이 누구인가),</u> der <u>den Ratschluss(뜻)</u> verdunkelt mit Worten ohne Verstand?
BB	<u>Wer ist es(이것이 누구인가),</u> der <u>meinen Plan(내 계획)</u> verdunkelt, mit Worten, gesprochen ohne Verstand?
ZB	<u>Wer behauptet(누가 주장하는가),</u> <u>mein Walten(나의 경</u> <u>영)</u> sei finster, und redet ohne Einsicht?

### 4.2.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 (1) 어순

히브리어 본문은 גַּם (미 제)로 시작하지만 『개역개정』과 『공동개정』은 이를 문장 끝에서 ‘… 누구냐?’로 번역합니다. 반면에, 『새번역』과 『새한글』은 문장 앞쪽에 ‘누구인가?’를 위치시켰습니다. 다만 『새번역』은 문장 전체를 의문문으로 처리하지만 『새한글』은 상반절만 의문문으로 번역합니다. 또한 『새한글』은 큰따옴표(“ ”)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습니다.

#### (2) 개별 표현의 번역

##### ① גַּם (미 제)의 번역

‘누구냐’(『개역개정』, 『공동개정』), ‘네가 누구이기에’(『새번역』), ‘이 사람은 누구인가?’(『새한글』).

##### ② הַצְטָעָה (에짜)의 번역

‘생각’(『개역개정』), ‘내 지혜’(『새번역』), ‘나의 뜻’(『공동개정』), ‘내 본

뜻'(『새한글』).

### 4.3.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 (1) 어순

읍기 38:2는 읍뿐만 아니라 읍기를 읽는 독자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응답이 마침내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성서 히브리어의 수사학적 용법의 전문가인 알터(R. Alter)는 히브리어 내러티브 장면 전개에서 등장인물의 대화 시작, 즉 직접 따옴표로 인용되는 문장의 첫머리에 향후 펼쳐지는 사건의 요체가 담겨 있음을 지적합니다(*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성서의 이야기 기술』).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의 머리말이 바로 **מי** (미 제), 곧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새한글』의 어순은 이러한 수사학적 특성에 따라 읍의 정체성의 문제를 부각합니다. 『새번역』에서도 ‘네가 누구이기에’로 시작하지만 2하반절을 의문문에 포함하여 ‘내 지혜를 의심하는’ 읍으로 단정합니다. 그러나 『새한글』은 2하반절을 평서문으로 번역하여 2상반절의 ‘정체성’ 질문에 더 집중하도록 하였습니다. 폭풍우 하나님의 발언이 창조 세계 내 인간의 위상(位相)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 (2) 개별 표현의 번역

**מי** (미 제)를 직역한다면 ‘이것이/이 자가 누구인가?’입니다. **מי** (제) 자체가 남성형 지시대명사이기에 ‘이 남자가 누구인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새한글』에서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로 번역했습니다. 『새번역』의 ‘네가 누구이기에’는 히브리어가 **אתה מי** (미 아타)일 때에나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2인칭 대명사로 ‘네가 누구냐?’로 묻지 않으시고 제3자에게 말하듯 ‘이 자가 누구인가?’로 물으실까요? 본문의 앞뒤 문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읍에게’(38:1) 말씀하고 계시고, 2인칭으로 ‘…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38:4)고 묻고 계시는데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 발언은 읍뿐만 아니라 인간 일반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의 최초의 사람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변하듯 읍은 하나님의 정의를 묻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따라서, 『새한글』의 ‘이 사람은 누구인가?’의 번역을 통해 고통 앞에 신정론(神正論)을 묻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초청합니다.

**אֶלְעָד** (에짜)는 최신 구약 히브리어 사전(HAL/HALOT)에 따르면, ‘충고(advice)’와 ‘계획(plan)’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주어가 인간 또는 하나님으로 구분하여 등장한다고 설명합니다. 읍기에서 **אֶלְעָד** (에

짜)는 주로 인간의 ‘계획(Ratschluss/Plan)’으로 친구들과 읍에 의해 사용됩니다(5:13; 10:3; 18:7; 21:16; 22:18 등). 문맥에 따라, 인간의 ‘계획,’ ‘의논,’ 또는 ‘꾀’ 등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과 같이 하나님에게 사용될 경우,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 신학사전 TDOT는 ἄγγελος(야아쓰) 동사 자체가 신의 ‘계시(oracle)’를 구하는 상황에서 신의 ‘충고(counsel/advice)’를 얻을 때 그 내용이 ἀπάντηση(에짜) 곧 신의 ‘계획/뜻(plan)’이 되었다는 의미론적 발전 과정을 설명합니다(예. 민 24:14). 따라서 읍기 38:2 이하 펼쳐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곧 하나님의 ‘계획’ 또는 ‘뜻’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역개정』의 ‘생각’은 지엽적이고 『새번역』의 ‘지혜’는 지나친 의역입니다. 『공동개정』과 독일어 루터판 번역의 ‘뜻(Ratschluss)’이 타당합니다. 『새한글』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본뜻’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본’은 접두사로서 꾸미는 명사의 ‘애초부터 바탕이 되는’ 의미를 강조해 줍니다. 태초로부터 창조된 세계의 운영 원리를 의미하는 ἀπάντηση(에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본뜻’입니다. 단지, 히브리어에 없는 1인칭 소유격 어미를 보충하여 ‘내 본뜻’으로 표현한 것은 전반절의 **나** **이** **것**(미 제)에서 인간의 ‘정체성’과 대조된 하나님의 ‘본뜻’을 부각하기 위해서입니다.

#### 4.4. 『새한글』 읍기 38:2의 가르침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인들이 듣고 싶은 것과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는 다른 그분의 ‘본뜻’을 자각할 때 비로소 우리의 ‘정체성’은 새로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되기 때문입니다. 폭풍우 신언설은 38:2에서 ‘이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읍은 폭풍우 언설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합니다(42:5). 그것은 바로 우주 세계에 충만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38-41장). 그 대서사시의 출발점으로서 본문 38:2 하나님 발언의 들머리는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에서 정의를 묻는 인간들에게 되질문(counter questions)을 통하여 대답하십니다. 불의한 현실에서 의로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본뜻’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정의의 질문은 어느새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 5. 읍기 42:5

### 5.1. 히브리어 본문, 한글, 영어, 독일어 번역본들 몇 가지 읊겨 적기

BHS <sup>5</sup>	<b>لְשִׁמְעָנָן שִׁמְעִיתִיךְ וְשִׁתְּחַתְּ שְׁנִי רְאִתְךָ:</b>
『개역개정』	내가 주께 대하여 <u>귀로 듣기만</u> 하였사오나 <u>이제는 눈</u> <u>으로</u> 주를 뵈옵나이다
『새번역』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u>귀로</u> <u>만</u> 들었습니다. 그러나 <u>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u> 주님을 뵙습니다.
『공동개정』	당신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u>소문으로 겨우</u> 들었 었는데, <u>이제 저는 이 눈으로</u> 당신을 뵈었습니다.
『새한글』	<u>귀에 들리는 말로</u> 주님에 관해 들었습니다. <u>이제는 직</u> <u>접 눈으로</u> 주님을 뵙습니다.
ESV	I had heard of you <u>by the hearing of the ear</u> , <u>but now my</u> <u>eye</u> sees you;
NET <sup>2</sup>	I had heard of you <u>by the hearing of the ear</u> , <u>but now my</u> <u>eye</u> has seen you.
LB	Ich hatte von dir <u>nur vom Hörensagen</u> ( <u>단지 소문으로만</u> ) vernommen; <u>aber nun hat mein Auge</u> ( <u>그러나 이제는 나</u> <u>의 눈으로</u> ) dich gesehen.
BB	Ja, bis dahin kannte ich dich <u>nur vom Hörensagen</u> ( <u>단지</u> <u>소문으로만</u> ). <u>Doch jetzt hat mein Auge</u> ( <u>하지만 이제야</u> <u>나의 눈으로</u> ) dich wirklich gesehen.

### 5.2.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 (1) 어순

5절 본문을 상반과 하반으로 나눌 때 그리고 각각의 구절을 또 전반(a)과 후반(b)으로 나눌 때 『새한글』의 번역은 히브리어 어순 그대로입니다. 5상반a(**לְשִׁמְעָנָן**[르쉐마-오전], ‘귀에 들리는 말로’), 5상반b(**שִׁמְעִיתִיךְ**[쉐마티카], ‘주님에 관해 들었습니다’), 5하반a(**וְשִׁתְּחַתְּ שְׁנִי**[에아타 예이니], ‘이제는 직접 눈으로’), 5하반b(**רְאִתְךָ**[라아트카],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다른 번역본들은 상반절의 a와 b가 바뀌어 표현되면서 ‘귀에 들리는 말’보다는 ‘주님에 관해 듣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 (2) 개별표현

### ① **לְאַשְׁמָנָה**(르쉐마-오젠)의 번역

‘귀로 듣기만’(『개역개정』), ‘귀로만’(『새번역』), ‘소문으로 겨우’(『공동개정』), ‘귀에 들리는 말로’(『새한글』).

### ② **בְּעֵינָה**(에아타 예이니)의 번역

‘이제는 눈으로’(『개역개정』),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새번역』), ‘이제 저는 이 눈으로’(『공동개정』), ‘이제는 직접 눈으로’(『새한글』).

## 5.3.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 (1) 어순

『새한글』 본문의 어순은 히브리어의 수사적 표현에 최대한 충실합니다. 이제까지 한글 자체의 어순은 동사가 문장 맨 뒤에 나오는 까닭으로 영문이나 독일어에 비하여 히브리어 어순을 따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문문체의 경우, 본문과 같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 (**לְאַשְׁמָנָה**[르쉐마-오젠], ‘귀에 들리는 말로’)가 먼저 나오고 서술어를 나중에 처리하기에 동사가 맨 뒤에 붙는 한글 표현에 가깝습니다. 이런 문장은 될 수 있는 대로 히브리어의 진행 순서를 따라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자의 의도에 맞는 동일한 수사적 효과를 얻기 때문입니다. 육은 ‘귀에 들리는 말’(5상반a)과 ‘직접 눈’(5하반a)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본문의 수사적 배치가 ‘하나님을 듣고(**שָׁמַעַנִּי**[쉐마티카])’ ‘하나님을 보는(**רָאָנָה**[라아트카])’ 서술에 앞서 하나님 만남의 수단인 ‘귀’와 ‘눈’을 앞서 부각하는 것입니다. 지혜 전승의 중심 요소 중 하나는 인간의 경험입니다. ‘귀’와 ‘눈’은 짹을 이루어 인간의 근본적인 경험을 대변합니다.

### (2) 개별 표현의 번역

육은 고통의 과정과 폭풍우 언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남의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번역들은 5절 본문의 ‘들음’과 ‘봄’을 상호 대조시킵니다. 이를 위하여 5상반절과 5하반절 사이의 접속사 ‘(와우)’를 ‘그러나’(『새번역』), ‘하였사오나’(『개역개정』) 또는 ‘들었었는데’(『공동개정』)로 번역합니다. 또한 영어와 독일어 번역에서도 ‘but’ 또는 ‘aber/doch’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새한글』에서는 ‘대조’ 보다는 순차적인 과정으로 읽습니다. WBC 주석 시리즈의 육기 주석가 클라인즈(D. J. A. Clines)는 본문의 상반절과 하반절을 평행하게 읽을 것을 제안합니다: ‘I have heard you with my

ears, **and** my eyes have now seen you.' 왜냐하면, 읍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지 직접 하나님을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당신을 뵙다'고 하는 것은 클라인즈에 의하면, 현재 읍이 경험하는 직접적 하나님 만남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일 뿐, '귀로 당신을 듣는다'와 대조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 그는 구약성서에서 '들음'과 '봄'은 상호 유사한 경험으로 병렬적 짝을 이룬다는 사실을 타당하게 지적합니다(예. 창 24:30; 출 3:7; 왕하 19:16 등). 무엇보다도, 읍기의 문학적 배경인 지혜 전승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들음'과 '봄'은 다른 경험이 아닙니다. 도리어 '귀'와 '눈'은 경험 수단으로써(읍 13:1; 29:11; 잠 20:12; 야 2:14) 상호보완적입니다.

따라서, 『새한글』은 읍이 경험한 폭풍우 신언설을 '들음'과 '봄'을 통한 하나님 섭리에 대한 완전한 깨우침으로 읽고 있습니다: '귀에 들리는 말로 주님에 관해 들었습니다. 이제는 직접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특히, **לְאָזֶן**(르쉐마-오젠)을 '귀에 들리는 말'로 번역한 것은 지성적인 인식의 과정(비교. 왕상 19:12)을 환기하고 있고, **אֱתָה עַמְּךָ**(에아타 예이니)를 '이제 직접 눈으로'로 번역한 것은 '들음'의 교육과정을 통해 마침내 생생하게 '봄'의 차원에 이르게 된 고양의 단계를 드러냅니다.

#### 5.4. 『새한글』 읍기 42:5의 가르침

읍기 42:5는 야웨의 폭풍우 신언설을 경험한 읍의 깨달음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수수께끼와 같은 창조 세계의 운행에 대한 질문 세례(38:1-39:30)와 두 거대동물의 무시무시하고도 아름다운 힘과 외모의 묘사(40:15-41:34[26])를 통해 읍은 어떤 가르침을 얻었을까요? 금번 『새한글』의 번역은 읍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과 신앙의 성숙에 이른 것은 어떤 신비의 하나님을 초월적으로 체험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고통이 닥치기 이전부터 경험해 온 하나님을 이제는 보다 더 온전하게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흔히 신앙인들은 읍기를 읽을 때 '새로운 것'을 기대합니다. 의인의 고통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의 직접적인 언설을 통해 듣기 원하고 불의한 세상 속 하나님 정의의 실행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읍기는 '고통론'에 대해서도 '신정론'에 대해서도 새로운 것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껏 알고 있었던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세계의 일부인 무질서의 거대한 힘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읍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호

와 하나님의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 세례들을 통해서 기준에 알고 있었던 지식들이 상기되고 연거푸 강조되면서 그 의미들이 되새겨졌습니다. 그 ‘들음’의 지혜자적 가르침(수사의문문)을 통해 궁극적인 ‘봄’의 온전한 깨달음에 이른 것입니다. 고통은 별다른 세상으로의 수동적 소외가 아닌 참다운 세상으로의 적극적 초대임을 읍기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제어>(Keywords)

천상 회의, 재난, 하나님의 일, ‘삿다이’(전능자), 정체성, 들음과 봄.  
Divine Council, Misfortune, Work of God, ‘Shaddai’(the Almighty), identity,  
Hearing and Seeing.

(투고 일자: 2025년 2월 19일, 심사 일자: 2025년 3월 25일, 계재 확정 일자: 2025년 4월 1일)